

▶공지사항◀

- 불타사 도감 인성스님
 - 4월 5일 음성공양 법회
 - 4월 12일 영상법회
 - 불타 예술제 안내
4월 12일 불타 예술제 1차 리허설
5월 3일 불타 예술제 2차 리허설
5월 16일 불타 예술제 - 오후 7시 30분 관음전
 -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
5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관음전
- ※ 초과일 연등 접수 \$100, 영가등, 사업등.

▶기도 동참(3월 22일 - 28일)◀

- 법등: 윤여원 장세환 이재광
- 인등만등: 윤수인 윤수진 윤수민 이현준 이현수 이현정
- 연등: • 기도: 임정신
- 대중공양: 이충일 양성덕화(떡) 이미나 불국화(꽃)
이종원 홍정숙 법연행

▶법회 및 기도 안내◀

- 일요법회: 매주 일요일 오전 11:00 - 12:30
- 합창단: 매주 목요일 저녁 8:00-9:30
매주 일요일 오전 10:00-10:50, 오후 2:00-3:00
- 영어법회: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
- 어린이 법회: 일요일 오전 11시
- 청년(선우회) 법회: 일요일 오후 2시
- 어린이 한글학교: 토요일 오전 9시 30분
- 참선수행: 매주 수요일 저녁 8시

- 회주: 현성스님
- 주지: 성향스님
- 도감: 인성스님

시카고 불타사
일요법회

불기 2559(2015)년
3월 29일 제 33호

4360 W. MONTROSE AVE., CHICAGO, IL, 60641 T:773-286-1551

 사찰 예절

- 예불과 법회는 불교 신행의 핵심이다. 그러므로 불자들은 법회와 예불에 반드시 참석하여 불보살님께 정성스런 마음으로 참배를 하고 법사스님의 설법에 귀 기울여야 한다.
- 법회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불자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다. 불자로서의 몸가짐을 익히며 다른 불자들과 도반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.
- 법회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진행된다. 그러므로 되도록 법회시간에 맞추어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되 중간에 나가지 않는다.
- 법회 중간에 나가야 할 때는 미리 출입하기 쉬운 자리에 앉았다가 법회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행동해야 한다.
- 법문을 들을 때는 설법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. 아는 내용은 다시 한 번 새겨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모르는 것은 더 공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.
- 법문의 내용을

마음 깊이 새겨 꾸준히 정진하다보면 밝은
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.

사찰 기본예절

- 절에 왔을 때 맨 먼저 법당에 들어와 참배한다.
- 부처님 전에 세 번 절함이 원칙이고 기도나 발원은 속으로 한다.
- 향은 반드시 하나만 사르고 초는 때가 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며 촛불을 끌 때는 손 또는 기구를 사용하며 입으로 끄지 않는다.
- 스님이나 신도님을 만나면 ‘성불하세요.’ 하며 합장 저두 한다. 말없이 합장 저두하여도 된다.
- 절에는 편안한 평상복을 입고 오되 너무 짧은 옷이나 심한 화장을 하지 않고 수수하게 함이 예이다.
- 도량내 술선하여 정리 정돈하고 깨끗이 한다.
- 청소·공양간·봉사 등은 업장을 소멸하고 선근을 기른다.
- 사찰 일은 우리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동참한다.
- 사찰 일을 할 때 아만을 가져서는 안 되며 화합을 해야 한다.
- 법당 정문은 조실 주지스님이 다니시는 문으로 신도는 옆문으로 다녀야 한다.
- 방에서 스님께 일배로 큰절을 한다. 회주스님이나 은사스님께 삼배한다.
- 스님들과 격의 없이 모든 것을 상담하되 고향·나이·출가동기·사적 질문 등은 묻지 않는다.

-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에서도 절은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. 절을 하는 것은 자기 고집과 아만을 꺾는 일이며, 부처님을 공경하는 일이며, 모든 증생을 공경하는 일이다.
- 불자는 합장하는 손 모습을 보임이 좋다. 공양 때 윗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여쭙 때는 꼭 합장해야 한다.
(합장은 마음을 모으는 표시로 연꽃 봉오리를 상징한다.)
- 사찰에서 소지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서 도난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.
-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남의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.
- 스님의 방을 허락 없이 함부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.
- 신도 상호간에는 서로 존경하되 나이 많은 이가 형이 되어 모범이 되고 적은이가 아우가 되어 공경하여야 한다.
- 보통 법당은 상단(불보살님 모신 곳), 중단(신중단, 화엄성증님을 모신 곳), 하단(영단, 영가님을 모신 곳)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공양물은 상단 중단 하단 순으로 올린다. 중단으로 상단 마지를 내리는 경우를 중단 퇴공이라 한다.
- 영단 또는 중단에 기도 천도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상단의 불보살님께 의식과 기도 등 예를 올리고 한다.
-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빗거리가 생겼을 때에는 부처님의 화합 정신을 해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인내해야 한다.

